

# ISSUE & FOCUS

Newsletter 2016-7(1)

## 청년학포럼 출범에 부쳐

김원식 한반도선진화재단 청년학포럼 운영위원장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이 글은 필자의 견해로서 한반도선진화재단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 문자 한 통 #7079-4545

우리나라 고령화 문제는 1970년대 이후 어느 나라보다 급속히 증가한 평균수명과 노후준비 없는 베이비붐세대의 퇴직에 대비하지 못 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의 도입,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 고령자들에 대한 의료비 부담 절감, 그리고 장기노인요양보험의 도입 등 지속적인 정책을 서둘러 도입해 왔다. 이에 따른 국민들의 세금부담이나 사회적 부담 그리고 세대 간 갈등은 어느 나라보다 컸다.

이들 제도의 도입이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이건 혹은 아니건 관계없이 노인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그리고 언뜻 보면 고령화의 긴 터널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건너가는 듯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터널의 남은 길이는 더 길어져서 언제 이 터널을 빠져 나갈지 알 수가 없다. 결국 현재와 같은 고령화정책으로는 도저히 터널을 빠져 나가지 못하고 말 것 같다. 따라서 현재의 고령화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선, 고령화의 근본적인 문제는 저출산이다. 아무리 노인문제가 심각해도 현재의 인구구조를 유지할 수 있을 수준의 출산만 있어도 고령화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것

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14년 1.205명으로 2002년 이후 1.3명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91개의 저출산정책을 도입했고 예산으로 80조원을 사용했다. 그런데도 출산율은 전혀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출산율은 결국 가정을 이루려는 청년들 선택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 결혼연령도 늦어져서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도 남성의 초혼연령은 32.6세, 여성은 30.0세로 0.2세가 상승했다. 여성의 초혼연령은 처음으로 30세를 넘었다. 물론 불경기에 따라 결혼연령이 늦어진 탓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호경기가 된다고 결혼연령이 앞으로 당겨질 것 같지 않다. 결혼은 배우자와 함께 자식을 낳아서 평생을 같이 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소득, 주거 등의 안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규직과 격차가 벌어지는 비정규직 일자리 증가나 소득으로 전월세도 부담스러운 주택시장으로 우리 청년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방황하고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셋째, 청년이 처한 노동시장의 현실은 최근 들어 더 악화되고 있다. 2016년 5월의 청년실업률이 9.7%를 기록하면서 5월 기준사상 최고이고, 전체 실업률 3.7%과 비교하면 거의 3배에 가깝다. 지난 2월에는 사상 최고인 12.5%였다. 반면 50세 이상 실업률은 감소해서 상대적으로 청년들의 어려움이 더 커져가고 있다. 새로 사회에 진출하는 대졸취업자들의 평균연령은 30세가 넘었다. 대학재수, 어학연수, 졸업연기, 그리고 취업재수 등의 결과다. 청년일자리 사업 수만 13개 부처의 57개에 2조1,000억 원이 2016년 예산에 잡혀 있다. 예산은 늘어나는데도 청년실업률은 꺾일 줄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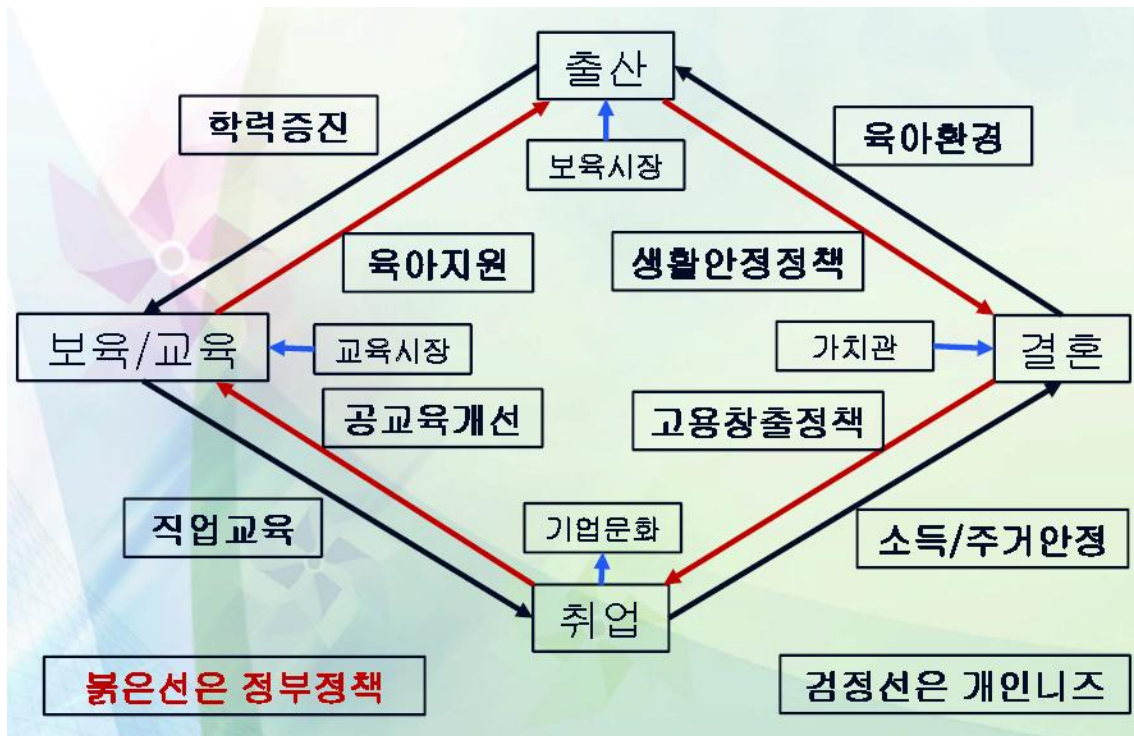
넷째, 청년실업률이 낮아지지 않는 이상, 그리고 취업에 있어서도 장기 취업이 실현되지 않는 이상 이들은 결코 노후준비를 할 수가 없다. 이들은 30세에 사회에 나와서 취업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50세까지 일을 하게 된다. 이후에는 비정규직이나 과거보다 낮은 임금 수준의 직장에서 일을 하게 된다. 그리고 70세까지 이러한 일거리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80세까지 생존한다. 따라서 사회인이 되어 사망할 때까지의 50년 동안 정상적인 소득이 가능한 기간은 불과 20년 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적어도 안정적 근로기간동안 일정 수준의 저축을 꾸준히 해야 함을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자신의 노후 보장도 불투명하면서 부모세대의 노후와 자녀양육을 강요받는 것이 우리의 청년들이다.

따라서 이제는 고령화, 출산, 청년, 취업 등에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하나의 연결고리 속에서 개인과 국가가 함께 협력하되 정책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 개별 문제들을 중심으로 아무리 최선의 정책이 도입하더라도 나머지는 개인의 선택 문제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예산 타령이나 정책 숫자 늘리기로 해결되기에는 사회경제적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

청년문제를 자신들의 취업문제 뿐 아니라 출산, 육아, 교육, 결혼 등까지 확대해서 보아야 하는 이유는 적어도 이러한 일련의 성장 과정이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이루어져야 우리 사회를 책임질 수 있는 인적 자원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이 건전한 국가관과 역사인식,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철학적 사고와 준법의식, 사회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도전정신 등을 갖도록 해야 한다.

출산에서 육아, 육아에서 교육, 교육에서 취업, 취업에서 결혼 등의 과정은 모든 개인들이 사회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정부는 인적·물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면 청년들은 사회적으로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즉, 청년들의 성장과정에서 들어간 사회적 비용이나 개인적 비용이 모두 매몰비용(sunk cost)이 된다. 이러한 흐름을 요약한 것이 다음의 <그림>이다.

〈그림〉 청년 성장의 흐름도



그림에서 외부의 검은 선 화살표는 정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 위한 예시적 정책 방향을 보인다. 첫째, 취업이 결혼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소득 및 주거안정 등 다양한 안정이 필요함을 보인다. 둘째, 결혼이 출산 및 육아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양질의 육아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출산 및 보육이 교육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학력증진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교육이 취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직업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내부의 붉은색 화살표는 앞으로 우리 정책이 지향해야하는 정책 패러다임을 보인다. 첫째, 취업이 원활히 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교

육의 질적 제고가 필요하다. 둘째, 교육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건강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출산과 보육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출산 및 보육이 가능하려면 효과적 결혼지원정책이 전제되어야 한다. 넷째, 결혼이 제대로 되려면 취업 정책이 제대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제는 개별 정책들이 효과성을 극대화하는데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별정책들이 전후방 효과를 극대화하는 조화로운 정책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청년문제를 가정이나 부모 혹은 개인들의 선택에 따른 결과로만 보았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청년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최고의 학력, 능력, 직장이 가능한 실질적 정부서비스를 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청년정책은 형식적 양적인 확대에 머물러 와서 국민들의 만족도는 점차 떨어지고 있고, 정부재원은 낭비되었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원하는 질적 욕구와 정부서비스의 질적 격차를 개인들의 부담으로 메꾸어왔다.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들의 노후준비 부족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지난 6월 23일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 출범한 ‘청년학포럼’은 이상에서 언급된 청년들의 문제와 정책적 대안들을 ‘청년학(Neostology)<sup>1)</sup>’으로 정리하고 그 결과가 우리사회를 이끌어갈 청년 육성에 기여하게 하고자 하는데 있다. 즉, 청년학은 과거 분절되어 연구되고 정책적으로 집행되었던 출산, 보육, 교육, 취업(노동), 결혼 등의 문제들을 ‘청년’이라는 하나의 틀 속에서 분석하는 학문이다. 그리고 청년학포럼은 단순히 학문적 담론을 논하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를 이끌어갈 청년들을 육성하는 실행 프로그램도 함께 구체화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청년들이 스스로 성장해 주기를 더 이상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이러한 기성세대의 기대에 지나친 부담을 갖고 있다. 그 결과 많은 청년들이 좌절과 자포자기에 빠져있다. 이들이 스스로 독립하지 않으면 이들도 자신들의 노후를 자식에게 의지해야 한다. 영원히 지속될지 모를 고령사회를 마감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청년학을 통하여 우리의 청년들이 스스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독립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내 마음같은 정책을 만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후원문자를 보내주세요.**  
(한 통 2,000원)

1) 청년학의 영문명으로 Neos (youth의 그리스어)와 tology(rule의 그리스어)의 합성어로 필자가 제안함.